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찾는 가치

: 자연과 문화, 기억을 중심으로

202410186 문화인류학과 윤여준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 본론

1. 춘천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

1) 호수와 물의 도시

2) 강원도 도청 소재지로서의 특성

2. 문화와 역사의 흔적

1) 6.25 전쟁과 춘천대첩

2) 김유정 문학과 지역 문화 정체성

3. 관광과 일상의 공존

1) 닭갈비·막국수와 음식 문화

2) 남이섬과 현대 문화 관광

Ⅲ. 결론

1. 가치 재확인, 발전 가능성

Ⅰ-1. 연구 배경

필자가 영촌을 맺어야 하는 지역은 춘천이다. 강원도 춘천과 일촌, 사촌도 아닌 '0'촌을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어떻게 맺어야 하나 고민을 해보았다. 처음에는 춘천이 내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라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강원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거주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 도시이지만 의외로 춘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등굣길에 매일 스쳐지나가는 의암호, 주말마다 찾는 명동 닭갈비 골목, 가끔씩 보이는 소양강의 물안개. 이런 것들이 그저 일상의 배경이었을 뿐 춘천이 어떤 도시인지,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영촌맺기를 통해 내가 살고 공부하는 이 도시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유명한 관광지인 남이섬이나 잘 알려진 먹거리인 닭갈비를 넘어서,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 기억, 문화적 정체성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Ⅰ-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로, 동쪽으로 화천군,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남쪽으로 홍천군과 접하며 북쪽으로 철원군에 이어진다. 춘천은 의암호·춘천호·소양호·파로호 등 크고 작은 호수와 소양강·북한강이 도심을 감싸는 독특한 수변 도시 경관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호반의 도시'라는 별칭을 얻었다. 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강원도 최대 도시이며,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대학교 등 행정·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은 남이섬, 소양강스카이워크,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이 도시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의 현장이었으며, 한국 근대문학의 거장 김유정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닭갈비와 막국수로 대표되는 음식 문화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춘천의 시대적 삶과 공동체를 담고 있다. 춘천이 단순히 경유하거나 관광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 문화가 복합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춘천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적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1. 춘천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

1) 호수와 물의 도시

춘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단연 '호반의 도시'이다. 춘천 도심 어느 방향에서도 호수나 강이 보이는 이 도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는 곳이다. 의암호(衣巖湖)는 1943년 의암댐이 완공되면서 생겨난 인공호수로, 춘천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며 흐른다. 면적 약 16㎢에 이르는 의암호는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춘천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잡은 공간이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고, 삼악산호수케이블카가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이어지며 도심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림1-소양호의 풍경 (출처: 춘천시청)

춘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물은 소양호(昭陽湖)이다. 소양강댐은 1973년 완공된 국내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저수량 29억 톤에 달한다. 소양강댐으로 인해 생겨난 소양호는 춘천, 양구, 인제에 걸쳐 뻗어있는 남한 최대의 인공호수로, '내륙의 바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실용적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춘천의 대표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소양호 선착장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로 갈 수 있는데, 이 사찰은 댐 건설 전에는 걸어서 찾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오직 배를 타고서만 닿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소양댐의 완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호수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 댐 건설로 인해 춘천시 북산면과 동면, 양구·인제 일부 등 6개 면 38개 동·리, 약 4,600세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수몰되었다. 강물 아래 잠긴 마을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이야기는 춘천의 물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의암호와 소양호를 비롯한 춘천의 물은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층위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다.또한 소양강호 주변에 위치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는 춘천 소양강댐 정상에 위치해 댐의 역사와 수자원의 중요성을 한눈에 배울 수 있는 복합 전시 공간이 있다. 탁 트인 소양호의 절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나들이 명소로 인기가 많다.

그림2- 소양강댐 물문화관 (출처: 춘천시청)

최근 춘천시는 의암호를 중심으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로 의암호의 상중도, 하중도, 붕어섬, 위도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춘천이 지닌 수변 환경을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춘천의 '물의 도시' 정체성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가고 있다.

2) 강원도 도청 소재지로서의 특성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행정 중심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춘천은 강원도의 여러 시·군 중에서도 비교적 도시화가 발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인구 약 29만 명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이며, 강원대학교·한림대학교·강원도립대학교 등 여러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한 대학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춘천이 젊은 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에너지가 흐르는 도시로 기능하게 한다. 매년 춘천마임축제, 춘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약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졌고,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통한 차량 접근도 편리하다.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춘천 관광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춘천을 수도권 인접의 대표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처럼 춘천은 행정·교육·문화·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도시로서, 단순한 지방 소도시가 아닌 강원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I-2. 문화와 역사의 흔적

1) 6.25 전쟁과 춘천대첩

춘천은 6.25 전쟁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도시이다. 특히 '춘천대첩(春川大捷)'은 6.25 전쟁 개전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춘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천상륙작전·낙동강전투와 함께 6.25 전쟁의 3대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종오 대령이 이끄는 국군 제6사단은 춘천 북방 소양강·봉의산·원창고개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대규모 진격을 사흘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의 결과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시간이 확보됐다. 춘천대첩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패망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

그림3- 춘천대첩 전승행사 (출처: 2013 춘천관광사진전)

오늘날 춘천 곳곳에는 그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다. 소양강변에 조성된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은 전쟁의 기억을 기리는 공간으로, 매년 6월에는 전승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강뉴 부대의 활약을 기리는 곳으로, 춘천이 국제적 연대의 현장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춘천 중심가에는 과거 미군 기지였던 캠프 페이지(Camp Page) 부지가 '춘천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6.25 전쟁 이후 춘천에 주둔했던 미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미공군막사가 보존되어 있으며, 냉전 시대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철거하는 대신 보존과 재생을 통해 전쟁의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쟁의 상처가 서린 공간이 오늘날 시민들의 쉼터이자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춘천의 역사적 공간들은 전쟁의 기억을 단순히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다.

2) 김유정 문학과 지역 문화 정체성

춘천이 배출한 문화적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단연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이다. '봄봄', '동백꽃', '금 따는 콩밭' 등 향토색 짙은 단편소설을 남긴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 단편소설의 축복'으로 평가받는다. 서른 해를 채 살지 못하고 가난과 폐결핵에 시달리다 떠난 그가 남긴 30여 편의 단편소설은 오늘날에도 독자들을 울리고 웃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딘가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 당시 농촌 서민들의 삶과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림4- 김유정문학촌 (출처: 춘천시청)

김유정의 고향인 춘천시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에는 2002년 '김유정문학촌'이 설립되었다. 김유정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전시관과 이야기집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작품의 무대인 실레마을 곳곳에 문학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복만이가 계약서 쓰고 아내 팔아먹던 고갯길' 등 이름만 들어도 소설 속 한 장면이 그려지는 이야기길 16마당이 마을 전체에 펼쳐져 있어, 방문객들은 마치 소설 속 세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한다. 또한 경춘선의 신남역은 오래전부터 '김유정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딴 철도역이 되었다.

김유정문학촌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작가 기념관을 넘어선다. 그의 작품은 실레마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학과 장소가 일체화된 특별한 문화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방문객들은 소설을 읽고 그 배경을 직접 걸을 수 있고, 반대로 마을을 걷다가 소설 속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는 문학이 공간을 풍요롭게 하고, 공간이 문학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상호작용이다. 이처럼 김유정의 문학적 유산은 춘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며,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기억과 자긍심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Ⅱ-3. 관광과 일상의 공존

1) 닭갈비·막국수와 음식 문화

춘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닭갈비와 막국수이다. 이 두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춘천의 시대적 삶과 공동체 문화를 담고 있는 향토 음식이다. 춘천 닭갈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주용으로 쓰이던 돼지고기 대신 개발한 닭불고기가 그 기원으로, 이후 1960년대 후반 철판 위에 양념한 닭고기와 채소를 볶는 형태로 발전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대학생이나 군인들이 즐겨 찾았고, 이때 닭갈비는 서민 갈비라는 애칭을 얻었다. 1970~80년대 춘천 명동 뒷골목에 하나둘 생겨난 닭갈비 가게들이 오늘날의 닭갈비 골목을 이루었고, 2001년 중앙고속도로 대개통과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 이후 전국적인 명물로 자리잡았다.

그림5-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포스터 (출처: 춘천행복알리미)

막국수는 메밀로 만든 면발을 동치미 국물이나 양념장에 비벼 먹는 음식으로, 그 역사는 임진왜란 이후 인조 시대부터 강원도 지방에서 긴 겨울 밤참으로 애용되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춘천은 막국수의 맏형 격으로, 신북읍 샘밭막국수를 비롯한 여러 유명 막국수 식당이 모여있다. 매년 개최되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는 이 두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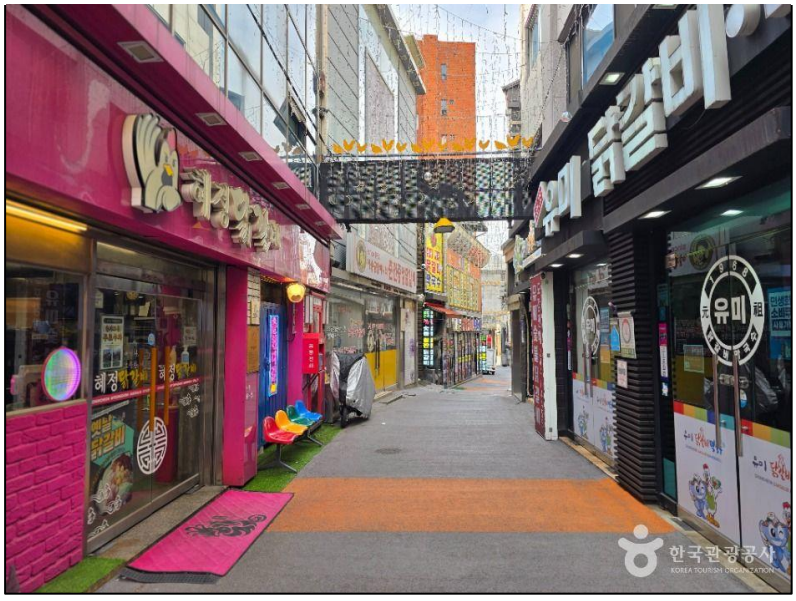

그림6-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출처: 한국관광공사)

필자가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며 느끼는 것은, 닭갈비와 막국수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디어나 SNS에 소개된 화려한 식당들에는 외지인들이 줄을 서지만, 정작 춘천 사람들은 각자의 동네 구석구석에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자신만의 단골 닭갈비집을 하나씩 품고 있다. 관광객처럼 특별한 날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편안한 차림으로 나가 익숙한 철판에 어깨를 맞대고 앉아 일상을 나누는 춘천만의 고유한 식생활인 것이다. 외부인이 소비하는 맛집과 지역민의 삶이 깃든 단골 식당이 공존하는 이 모습은, 춘천의 역사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남이섬과 현대 문화 관광

춘천 관광을 대표하는 장소로 남이섬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강에 위치한 남이섬은 '동화 나라, 노래의 섬'을 콘셉트로 사시사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자연 생태 문화공간이다.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후,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대거 몰려들었다. 연간 271만 명(2013년 기준)이 방문하는 춘천 최대의 관광지로, 이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한국의 대중문화와 결합된 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남이섬이 흥미로운 점은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남이섬은 춘천시에 속하면서도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여권과 화폐, 우체국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는 독특한 관광 전략으로, 방문객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산책로,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메타세쿼이아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공간이다.

그림7- 춘천 남이섬 풍경 (출처: 춘천시청)

한편, 최근 춘천에는 2022년 개장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있다. 아시아에서 3번째, 세계에서 10번째로 개장한 이 테마파크는 의암호 중도(中島)에 위치하여 호수와 함께하는 독특한 입지를 가진다. 레고랜드의 개장은 기존의 자연·역사 중심 관광에서 패밀리 테마파크로 춘천 관광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남이섬과 레고랜드는 춘천이 단순한 자연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개발이 춘천이 지닌 고즈넉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Ⅲ. 결론

1. 가치 재확인, 발전 가능성

이번 영촌맺기를 통해 필자는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던 도시, 춘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의암호와 소양호로 대표되는 춘천의 물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수몰된 마을의 기억, 도시의 생태적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개발 의지가 복합적으로 응축된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춘천대첩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춘천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이 도시에 살면서도 필자는 이를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로만 여기고 있었다. 소양강변에 있는 기념공원과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은 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이 도시의 일부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느끼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유정 문학은 춘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다. 실레마을이라는 구체적 공간과 결합된 그의 문학은 춘천 사람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학과 장소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닭갈비와 막국수 역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서민들의 삶 속에서 탄생해 시대를 함께 살아온 이 음식들은 춘천의 공동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관광객과 지역민이 같은 공간에서 나누는 일상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춘천은 오늘날 강원도의 행정·교육·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자연과 역사, 문학과 음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다. 단순히 경유하거나 잠깐 관광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곳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관광 개발과 자연 보존, 역사 기억과 현재적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호수지방정원 사업과 같이 자연을 중심에 두는 발전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춘천대첩의 기억과 김유정 문학의 정신이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춘천을 단순히 등하교의 배경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필자로서는, 이번 영촌맺기를 통해 이 도시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 안 것은 분명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춘천 곳곳을 더 깊이 탐색하고, 이 도시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춘천이 단순히 소비되고 마는 일회성 관광 도시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생태와 역사, 문화적 자산을 동력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생명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춘천시청 관광 포털, https://www.chuncheon.go.kr/tour/

춘천여행ON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춘천시청 - 소양강댐·소양호, https://www.chuncheon.go.kr/tour/destination/all-tour/detail/?tourId=215

춘천시청 - 남이섬, https://www.chuncheon.go.kr/tour/destination/all-tour/detail/?tourId=191

춘천시청 - 김유정문학촌, https://www.chuncheon.go.kr/tour/destination/all-tour/detail/?tourId=189

춘천시청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https://www.chuncheon.go.kr/happiness/festival-news/?bbsId=BBSMSTR_000000000295&nttId=464084&flag=view

춘천시청 - 명동 닭갈비골목, https://www.chuncheon.go.kr/tour/destination/all-tour/detail/?tourId=231

'6.25전쟁 첫 대승...다시보는 춘천대첩', KTV 한국정책방송, https://m.ktv.go.kr/content/view?content_id=441684

'춘천대첩 전승행사와 호국 영웅들의 기백 계승', 춘천 관광 포털, https://www.chuncheon.go.kr/tour/destination/ai-tour/tour-news/?bbsId=BBSMSTR_000000000742&nttId=1009&flag=view

'전철 타고 떠나는 이야기 마을, 춘천 김유정문학촌', 한국관광공사,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49416d12-efaa-4a6e-ace6-d41264667301
'1960년대부터 서민 입맛 사로잡은 춘천 닭갈비', 한국관광공사,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af777ab3-69df-4bf9-97e2-6d9fa31e2b7a
'체류형 호수 관광 진화하는 춘천…호수 낙원 伊코모에서 배우다', 다음뉴스, (2025.09.24.), https://v.daum.net/v/20250924190505802
춘천호수지방정원, 봄내 춘천시 시정 소식지, https://bomnae.chuncheon.go.kr/contentView?contentNo=2328&no=411
[통일을 향해 미래를 열자] 4. 6·25전쟁 격전지,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16241